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운영 및 교과과정 비교 연구

정 완 규* · 권 수 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교수학 전공 및 교과과정 운영 상태를 조사하고·분석하여 우선 그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미국의 대학에서 운영되는 피아노교수학 전공운영 및 교과과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방법은 우리나라 8개 대학교 9개 대학원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혹은 피아노연주 전공 전임/주임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며, 이 중 1개교를 제외한 7개 대학교 8개 대학원에서 응답에 참여하였다(89%). 연구의 내용으로는 기관정보 및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 입학전형, 피아노교수학 전공 대학원 교과과정, 피아노교수학 강좌내용, 그리고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의 수업참관과 교습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 주제어: 피아노교수학, 피아노페다고지, 교과과정, 대학원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II. 문헌연구

1.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아노교수학 설립배경 비교
2. Milliman의 미국 대학원에서의 피아노교수학 분야의 필수교과목에 대한 실태(1992)

III. 연구자료 분석 및 결과

IV. 토 론

V. 결론 및 제언

* 중앙대학교 교수

**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I. 서 론

1925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학부에 피아노 전공이 도입된 이래 21세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피아노 전공은 곧 피아노 연주전공을 뜻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연주자 양성의 교육을 의미한다. 전문 피아니스트를 육성해 사회에 배출시켜 피아노 연주자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도이다. 연주자의 길은 멀고도 험해 졸업 후에도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과 드물게 박사과정까지 거치며 연주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일부는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해 해외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유럽의 음악원에 진학하여 연주자 자격증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피아노 전공자의 연주 수준은 향상되었고 이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활약하는 피아니스트도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연주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지도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왜냐하면 전문 피아니스트는 자동적으로 피아노 지도의 전문가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대학이 똑같이 연주자의 양성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현상을 가져왔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피아노 교육은 소수의 전공자를 위한 교육에서 점차 일반 아동들을 위한 예능교육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1980년대에 들어서며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우리나라 학원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7년에 서울시에만 1,980 여개의 음악 관련 사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1,000개가 넘는다고 보고하였다(Won, 1999). 이러한 현상에 의해 피아노 교육을 담당할 지도교사의 수급, 학습에 사용될 피아노 교재와 지도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대처하기위해 필요한 피아노 교수학이 대학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아노 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양적으로만 팽창하며 질적인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피아노 교수학이 대학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곧 피아노 교수학의 학문적 부재와 교육에의 응용과 활용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보편화된 일반 피아노교육의 철학, 그리고 목적과 목표 등의 이론적 배경이 없었으며 전문 교사의 부재, 그리고 피아노교재와 지도방법의 개발의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무분별한 피아노 교육이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정완규, 2005, 2008; 권수미, 2008).

피아노 교수학의 도입과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21세기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서서히 피아노 교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대학에 따라 일반 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 피아노 교수학 석사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중앙대학교는 유일하게 학부과정에도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였다. 현재에 이르러 약 10개 대학에 피아노 교수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이 중 2개교에서는 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있으나, 피아노 교수학의 바람직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과과정과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학이 갖는 역할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는 것은 피아노 교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피아노 교수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서방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아노 교수학의 도입과 성장이 늦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교수학 전공 및 교과과정 운영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우선 그 실태를 파악하며 미국의 대학에서 운영되는 피아노교수학 전공운영 및 교과과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수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교수학 전공운영 및 교과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1월을 연구 시점으로 하여 피아노 교수학 전공이 개설된 9개 대학원(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수원대학교 테크놀로지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실용음악대학원,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 대학원, 호서대학교 일반음악대학원, 가나다 순)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위 9개 대학원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혹은 피아노연주 전공 전임/주임 교수들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대학의 응답자들에게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협조를 거듭 요청하여, 8개교 9개 대학원 중 1개교를 제외한 7개교 8개 대학원에서 응답에 참여하는 89%의 수거율을 보였다.

이 때 연구도구인 설문지 개발은 지난 1992년 미국 전역 128개 음대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교수학 관련 교과과정 조사 연구로는 유일한 Milliman(1992)이 개발한 조사 도구 중, 기관정보 일부와 피아노교수학 강좌내용 9문항, 그리고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의 수업참관과 교습경험에 관한 9문항만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입학전형, 피아노교수학 전공 대학원의 교과과정 그리고 조언에 관련된 문항들은 본 연구를 위하여 새로이 개발되었다. Milliman(1992)의 경우 연구대상이 피아노교수학 관련 필수과목이 개설된 미국의 총 128개 대학원이고, 본 연구의 경우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개설된 우리나라 총 9개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Milliman이 제작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본 설문지의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영역은 기관정보 및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 입학 전형에 관한 11개의 선택·단답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영역은 피아노교수학 전공 대학원 교과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으로 총 8

개의 선택·단답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번째 영역은 각 학교에 개설되는 피아노 교수학 강좌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영역으로 교수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 단계의 Likert Scale을 사용한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 영역은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 수업참관과 교습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형으로 이루어진 9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은 피아노 교수학 전공 강좌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형 문항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3월 이후에 새로이 개설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대학원에 개설된 석·박사학위과정 중 석사과정만을 다루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 교과과정의 비교부분은 첫 번째 영역의 기관정보 일부분항과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의 피아노교수학 강좌내용 그리고 수업참관과 교습경험 문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한다.

II. 문헌연구

1.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아노교수학 설립배경 비교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서양음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80년경 구한말 시대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여 종교, 교육, 그리고 의술 등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무렵 서양음악도 더불어 유입되었다. 최초로 정식 음악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반세기 후의 일이다. 1925년 이화여자전문대학교 음악학부에 우리나라 최초로 피아노전공이 개설되었으며 뒤이은 음악대학은 1945년 해방 이후 국립 서울대학에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경제난, 그리고 50년대의 6.25 전쟁 등으로 나라가 황폐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음악의 보급과 발전은 어려운 일이었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해 대학에 본격적으로 음악전공이

보급된 60년대 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피아노 전공으로 학사 학위가 개설된 51개의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그 외 음악교육, 교회음악전공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0여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한국교육신문사, 2005). 이들 모든 대학의 피아노 전공은 연주 전공을 의미하며 연주자 양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졸업 후 전문 연주자로 활동을 예상하나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연주자를 위한 연주 기회가 무척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의 절대부족, 연주에 대한 수요 부족, 경제성의 부재, 그리고 석/박사 출신의 고학력자들의 인력 과잉 공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학부에서 연주전공자는 계속 배출되고 그 중 해외에서 최고학위를 취득한 연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나 사회에 연주전공자가 활약할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조선우, 1996; 장혜원, 1997).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연주 전공만을 고집해 왔으며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연주자로 활약하거나 성장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교육만이 전통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집해왔다. 즉, 소수의 연주자가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대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오랜 게임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사회는 연주자 보다는 피아노 교육을 담당할 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그 주된 이유로는 연주자 양성이외의 것은 학교의 수준과 질이 떨어뜨린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파악된다(정완규, 2008). 그 결과로 피아노교육의 기초단계는 무시되고 피아노 연주자 양성교육과 같은 고급단계만 다루려는 경향이 심했으며 결과적으로 피아노 교육의 기초가 붕괴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졸업생 대부분이 사회에서 피아노 교육에 종사하는 실정으로 볼 때 이 분야를 다루는 피아노 교수학의 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연주전공자 양성과 더불어 피아노 교수학 전공자의 육성에도 대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들이 일어났으며 한국 음악교육체제가 연주위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도수준의 향상과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준비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조선우, 1996; 장혜원, 1997; 정완규 2005).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음악대학들은 1990년대 이후 졸업생들의 사회 진로의 새로운 창출이 매우 어려운 연주 전공자 양성 일반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교수학에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가시적인 변화는 피아노과 또는 기악과의 피아노 전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새로운 과목으로 ‘피아노 페다고지’ 또는 ‘피아노교수법’이 개설되었으며, 1990년대 말 부터는 국내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피아노 교수학 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에 따라 일반대학원에 피아노 교수학 전공이 도입되거나 또는 일반대학원과는 별도로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운영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8년 8월 현재, 경원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일반음악대학원에 전공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수원대학교 테크놀로지 대학원,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실용음악대학원, 그리고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에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였다. (가나다 순) 이를 종합하면 총 9개교 10개 대학원에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의 짧은 역사에 반해, 미국에서의 피아노교수학의 역사 및 발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후반부터 음악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 커리큘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피아노 교수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피아노를 배우는 인구가 확산되며 소수의 전공자 교육에서 다수의 일반 피아노 교육으로 피아노 교육의 범위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이었다.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교사의 육성, 학습교재 및 재료의 개발, 그리고 지도방법의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발전은 1900년 이후부터 시작된다(Uszler & Larimer, 1984, p. 1-2). 1920-30년대에 몇몇의 음악교육대학에서 그들의 연주 프로그램에 피아노교수법 강좌를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에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Music에서 미래의 음악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연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실습을 경

함께 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제기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때 피아노교수학 전공의 필요성이 강조된 또 하나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미국 음악대학에서는 음대생 중 비피아노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피아노 프로그램(클래스 피아노)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 그룹피아노지도교사 양성을 위하여 피아노 교수학 전공의 확장이 탄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Lancaster, 1979). 이처럼 피아노교사 훈련과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자, 지난 1979년에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가 신설되고 피아노 교수학과 설립을 위한 기본 교과과정 및 학교현황을 밝힌 Handbook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피아노교수학의 필요성 및 교과과정, 학위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장되어 미국의 많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 분야 과정의 개설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다(Uszler & Larimer, 1984a; Uszler & Larimer, 1984b; Chronister & McBeth, 1991).

2. Milliman의 미국 대학에서의 석사과정 피아노교수학 필수교과목 조사 연구 (1992)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운영 및 교과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국내에서는 아직 다루어진 연구가 없었다. 외국의 경우 Milliman(1992)이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에서 출판한 전미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 열람(1991, Directory of Piano Pedagogy Offering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y)을 바탕으로 128개의 대학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피아노교수학 관련 교과과목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 조사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가 가능한 문항에 대해서 Milliman(1992)의 연구를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에서 피아노 교수학 전공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대부분은 석사과정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아노교수학에 비중을 둔 음악학석사 학위가 가장 보편적이다(49.4%). 피아노교수학 전공필수과목이라 하여도 교과목명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아노교수학 교재로는 James Bastien(1988)의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로 조사되었으며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과제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으로 읽기, 교수문헌 조사, 노트정리 등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피아노교재와 관련된 지도활동을 발표하는 워크숍을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 의미 있는 과제로 평가하였다.

피아노교수학 전공 교과목의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초급과 중급을 위한 개인교습 문헌의 교수전략 지도에 가장 많은 강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1/3이 학습장애아들을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을 학습주제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피아노교수학 전공교과목에서 다루지는 테크닉으로는 아티클레이션, 다이내믹, 핑거링, 손위치, 독보, 페달링, 프리이징, 리듬, 초전, 테크닉, 음색 등이었으며, 이 중 독보, 리듬, 그리고 테크닉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인 기술로는 귀로 듣고 연주하기, 재즈/블루스/팝 음악 연주하기, 전자건반 기술, 컴퓨터 테크놀러지와 총보 읽기로 조사되었다.

피아노교수학전공에서 다루는 교수문헌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여 지도하는 분야로 중급학생을 위한 독주곡집과 일반 초급용 피아노 교재 문헌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피아노교재, 초급병행 앙상블곡집, 중급·고급수준 및 성인그룹피아노를 위한 앙상블곡집, 비음대생 및 비피아노전공 음대생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교재 문헌 연구에 관심이 적어 이 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였다. 피아노교수학 강좌들에서 다루지는 학습주제들의 종류와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주제로 교사의 인성과 피아노교수문헌의 선택을 꼽았으며, 그 외에 피아노교수내용의 개발, 교수계획, 학습이론과 스타일, 학생의 동기 유발, 피아노 교수철학, 교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도 중요하게 다루지고 있었다.

피아노교수학 전공 필수과목 중의 하나인 참관수업과 지도실습에 관한 조사에서 3/4이상의 대학원에서 피아노 수업참관과 지도실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최하 평균 8.6시간의 수업참관을 요구하였으며, 지도실습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도 별도로 평균 9.5시간의 수업관찰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때 참관대상은 각 학교의 피아노교수학 및 연주전공 전임교수 혹은 강사, 그리고 동료 교수법 전공 학생의 지도를 관찰한다고 조사되었다. 참관수업의 형태로는 개인교습 뿐만 아니라 그룹교습도 동시에 참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학교의 그룹피아노, 랩, 전공실기를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절반 이하의 학교에서는 학교 밖의 지역 개인 피아노교사, 일반 공립학교의 음악수업도 참관하게 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석사과정 피아노교수학 지도교수들은 학생들의 지도실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관찰로 운영하고, 절반 이상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여 평가하거나, 1/3 미만의 교수는 오디오테이프 녹음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평가 결과는 대부분 개인면담을 통하여 알려주고 3/4이상은 문서형태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실습 유형 중 특히 대학에서의 그룹피아노지도가 응답수의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급수준의 학생보다는 중급과 초급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 그룹 교습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연구자료 분석 및 결과

1. 기관정보 및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 입학전형

본 연구 설문지의 첫 번째 영역에서는 학교기관의 정보 및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 입학전형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한 총 8개교 9개

대학원 중 응답에 참여한 7개교 8개 대학원(89%)은 모두 사립 대학교 대학원이었으며 이 중 3개 대학원(37%)은 일반대학원에 속하고 나머지 5개 대학원(63%)은 특수대학원에 속하고 있다. 이 중 일반대학원 3개교는 모두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 5개교 중 4개교는 야간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개교는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조사한 문항에 있어서, 응답한 8개 대학원 중 6개 대학원(75%)은 학부전공(피아노전공, 비피아노전공, 비음악전공)에 상관없이 학생 모두 4학기 또는 5학기 동한 수업을 듣는다고 답했다. 대학원별로 졸업과제 이수 능력에 따라 졸업하기까지 추가학기 이수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8개 대학원 중 2개 대학원(25%)은 학부전공에 따라 수업연한에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E대학원은 피아노전공생의 경우 5학기, 비피아노·비음악전공생은 7학기를 수업연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H 대학원은 피아노전공생의 경우 4학기, 비피아노·비음악전공생의 경우 5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추가로 졸업과제 이수기한이 필요하며 마지막 전공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또 다시 추가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원 지원 자격을 묻는 문항에서 8개 대학원 중 2개(A, G대학원 25%) 대학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피아노전공으로 음악학사 혹은 음악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1개 대학원(B대학원, 13%)은 피아노 및 비피아노 음악학사 혹은 음악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개 대학원(63%)은 국내외 음악대학 졸업생 및 비음악전공으로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피아노교수학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 전형절차를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서류전형, 구술/면접, 실기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피아노 지도실습이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대학원과 E대학원의 경우 10-15분정도의 피아노 지도시연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 E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교수학과 입학전형은 피아노 문헌과 피아노 연주이론에 관한 필기시험을 치루는 유일한 학교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대학원 실기전형에서 요구되는 레퍼토리들이다.

<표 1> 대학원 실기전형 레퍼토리

A대학원	B대학원	C대학원	D대학원	E대학원	F대학원	G대학원	H대학원
자유곡 (10분이내)	쇼팽에튀드 자유곡1곡	자유곡 1곡	자유곡	바하평균율 자유곡, scale 종합, 간단한 테크닉 실기	자유곡 (10분이내)	베토벤 소나타 전악장, 낭만자유곡	자유곡 (10분이내)

본 연구 조사기간인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 해인 2007년에 각 대학원에 등록된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학위 과정 학생 수를 알아본 결과, 지난해 동안 등록된 학생의 수가 다음 <표 2>와 같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응답인 대학원을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7개 대학원을 살펴보면 지난 2007학년도에 적게는 6명부터 많게는 52명까지 학생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에 참여한 대학원(N=7)에 지난 2007학년도에 등록된 학교당 학생 수의 평균은 24.4명에 달하였다.

<표 2> 2007학년도에 등록된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 학생 수(응답 수 N=7)

학교명	A대학원	B대학원	C대학원	D대학원	E대학원	F대학원	G대학원	H대학원
학생수	20	9	20	52	16	무응답	6	48

1999년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피아노교수학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된 이 후, 그 동안 8개 대학원을 졸업 한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될지 조사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는 설문지 응답에 임한 8개 대학원 중 2개 대학원이 무응답 함으로써 5개교 6개 대학원만의 졸업생 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중 2개교 3개 대학원은 2007년 기준으로 불과 몇 년 전에 신설되어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3개 대학원의 총 졸업생 수는 아래 <표 3>에서 제시하며 평균은 약 58명에 불과하다.

<표 3> 2007학년도까지 졸업한 피아노 교수학 석사학위 학생 수

학교명	A대학원	B대학원	C대학원	D대학원	E대학원	F대학원	G대학원	H대학원
졸업생수	63	0	0	50	무응답	무응답	0	62

피아노교수학 지도 교수의 수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각 대학원에 속한 피아노교수학전공 전임교수의 수를 알아본 결과, A, D, G, H 대학원 각 1명씩, 총 4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피아노교수학 전공 전임교수 본인이 피아노 교수학 전공자인지 여부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시에 시간강사의 수를 조사한 결과, 0-13명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학교당 평균 6명의 강사가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는 셈이다(N=8), <표 4>.

<표 4> 각 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시간강사 수

대학원명	A대학원	B대학원	C대학원	D대학원	E대학원	F대학원	G대학원	H대학원
강사 수	5	3	강의2 실기11	9	3	11	0	6

각 대학원별 학위명을 조사한 문항에 있어서 8개 대학원 중 4개 대학원(50%)은 음악석사 (Master of Music)를, 2개 대학원(25%)은 피아노교수학석사 (Master of Piano Pedagogy), 1개 대학원(13%)은 예술학석사, 그 외 1개 대학원(13%)은 음악학 석사라는 학위명을 사용하는 등 학교마다 다양한 학위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피아노교수학 전공 대학원 교과과정

설문지의 두 번째 영역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전공 교과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총 8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문항은 각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졸업이수 학점을 알아보는 것이다<표 5>. 대체로 7개교 8개 대학원 중 5개 대학원(62.5%)에서는 학부전공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4-33학점까지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3개 대학원(37.5%)은 학부전공에 따라 학생 별 이수 학점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B대학원 및 C대학원은 학부전공에 상관없이 학생 모두 동일하게 2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응답

하였으나, B대학원의 경우 음악과내규에 학부과정에서 비피아노전공이나 비음악전공을 한 학생의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의무화하여 학과에서 12학점 이내로 지정해 준다고 대답하였다. 또 다른 예로 H대학원은 학부 때 피아노전공자인 경우 30학점, 비피아노·비음악전공자인 경우 38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각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졸업이수학점(a=피아노전공, b=비피아노전공, c=비음악전공)

대학원명	A대학원	B대학원	C대학원	D대학원	E대학원	F대학원	G대학원	H대학원
졸업이수 학점수	24	a=24 b,c=36	24	30	a=33 b,c=35	30	33	a=30 b,c=38

각 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 교과과정에 있어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의 분류 유무와 지난 2007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개교 8개 대학원 중 2개 대학원(25%)에서만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의 구분을 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대학원 별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목의 한 예이다<표 6>.

<표 6> 피아노교수학 대학원 교과과정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의 예시

학교명	교과목 명 및 학점 수	
A대학원	필수 교과	피아노 교사실습 (2), 피아노교수법I (2), 피아노교수법 II (2)
	선택 교과	피아노교재 및 음악공학연구 (2), 음악교육 및 음악교수법 (2)
H대학원	필수 교과	전공실기 및 이론 1, 2, 3, 4 (각 2학점)
	선택 교과	교수학개론 (3), 그룹피아노교수법 I, II (각 3학점), 중급피아노교수법 (3), 초급피아노교수법 (3), 디지털피아노의 활용과 기법 (3) 건반화성 및 작곡 (3), 피아노양상불 문헌연구 (3)교수법 세미나 (3), 교수실습 (3), 집중탐구 I, II (각 3), 연주 (P), 논문 (P), 전공실기 및 이론 심화과정, 그 외 다른 전공을 위해 개설된 다양한 교과목을 추가로 선택가능

그 외 6개 대학원(75%)에서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의 구분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대학원에서 지난 2007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과 학점 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2007학년도에 개설된 각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교과목과 학점 수

대학원명	교과목명 및 학점 수
B대학원	피아노교수법문헌 I, II(3), 피아노교수법세미나 I, II(3), 전공실기I, II(3), 논문연구(2), 음악사연구(3), 음악이론연구(3), 연구방법 및 문헌연구 (3) *이 외에 연주학 교수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C대학원	전공실기 (2), 피아노교수법세미나 (2), 유아피아노지도법 (2)
D대학원	그룹지도교수법(II), 피아노문헌세미나 I, II (2), 피아노교수법개론 (II), 피아노교수법 I, II (2), 음악이론 (2), 쥬즈화성법 (2), 음악경영(2), 전공실기 I(2), 전공실기 II(2), 전공실기III(3), 세미나 I, II(2), 피아노교수의 재료와 실습 (2), 쥬즈 반주법 (2), 피아노교사실습 (2),
E대학원	피아노교수법개론 (3), 초급피아노교수법(교재연구 및 개발, 3), 피아노테크놀러지 (2), 찬송가·복음성가반주법지도 (2), 전공실기 I, II, (1) 교육심리 (3)
F대학원	피아노교수법 I, II(3), 피아노문헌 I, II(3), 앙상블음악피아노교수법(3), 현대 테크놀러지와 그룹피아노교수법(3), 피아노교수실습 I, II(3) 피아노연주세미나 I, II(3), 현대피아노교수법의 동향과 진단(3), 전공실기 I, II(3) 피아노교수학개론 (3), 즉흥연주와 반주법 (3)

다양하게 개설된 교과목들 중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과목 중의 하나인 동시에, 학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실기시험의 횟수와 학기별로 요구하는 과제곡이 무엇인지 알아본 문항에서 대체로 2학기-4학기 동안 2-4회에 걸쳐 실기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제곡은 학기별로 다른 시대의 작품연주를 요구하기도 하고, 20-30분 분량의 자유곡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며, 듀오 앙상블작품 연주를 추가로 요구하는 학교도 조사되었다.

<표 8> 우리나라 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 교과과정 중 전공실기시험 횟수 및 과제곡

학교명	전공실기시험 횟수 및 레퍼토리
A대학원	1학기: Bach 작품 중 평균율을 제외한 춤곡 중심으로 2학기: Bartok's Mikrococosmos 제 6권 중 3곡의 다른 춤곡 3학기: 낭만 작품 중 한 곡 4학기: Beethoven 초기 소나타 중 1곡 (전 악장) (총 4회)
B대학원	4학기동안 3~4시대의 작품들 (총 4회)
C대학원	전체 자유곡 (총 4회)
D대학원	시대가 다른 자유곡 2곡으로 20분 프로그램 (총 3회)
E대학원	1학기: 바로크 작품과 바르톡 작품, 듀오곡 2학기: 고전 소나타 전악장과 고전 변주곡, 듀오곡 3학기: 낭만작품과 낭만 소품, 듀오곡 4학기: 현대 (1911년 이후) 소품과 인상주의 작품, 듀오곡
F대학원	1학기: 자유곡 30분 분량 2학기: 자유곡 30분 분량 (총 2회)
G대학원	1학기: 베토벤 후기 소나타 전 악장, 낭만 에튀드 2학기: 낭만자유곡, 현대 에튀드 3학기: Bach의 Grand Piece 중 1곡, 현대 자유곡 4학기: 자유곡 (시험 없음) (총 3회)
H대학원	1학기: 고전 현대 각 한 곡 씩 + 피아노앙상블 한 곡 2학기: 낭만 바로크 각 한 곡 씩 + 피아노앙상블 한곡 3학기: 콘체르토 빠른 악장 한 곡 + 피아노앙상블 한 곡 4학기: 4학기/5학기: 대조적인 두 시대를 포함한 자유곡 + 피아노앙상블 한 곡 (총 4회)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자격시험(종합시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7개 교 8개 대학원 모두 종합시험을 치른다고 응답하였다(100%). 그 구체적인 평가 분야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1개 대학원을 제외한 7개 대학원만이 응답에 참여하였다(88%). 이들 대학원은 적게는 두 가지 분야부터 많게는 다섯 가지 분야의 종합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분야를 살펴보면, 외국어(영어)자격시험과 피아노교수학 전공문헌 과목을 평가에 포함시킨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건반화성, 작곡 능력 등을 평가하는 음악

이론이나 피아노 연주문헌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2개교(29%)에서는 추가로 40시간 이상의 인턴십을 요구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표 9>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자격(종합)시험 의 종류

학교명	영어	피아노교수학전 공문헌	음악이론	피아노 연주문헌	인턴십	기타
A대학원	O	O	O	O	40시간이상	
B대학원	O	O	O	O		음악사 (선택)
C대학원	O	O				
D대학원	O	O	O	O		
E대학원	O	O		O	40시간이상	
F대학원	O					선택 (2과목)
G대학원						선택 (3과목)
H대학원		O	O			

자격시험을 치른 후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제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8개 대학원 모두 석사학위논문은 필수로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주회와 렉처리사이트 중 한 가지를 지정하여 필수로 요구하거나 또는 선택하도록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한 대학원에서는 독주회와 논문 대신 추가학점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표 10> 참조

이처럼 모든 대학원에서 졸업이수를 위해 필수과제인 논문작성 시 지도는 누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대체적으로 피아노교수학전공 교수(전임, 초빙, 겸임, 시간강사) 이외에 피아노연주 전공 혹은 음대비피아노전공 전임교수들도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대학원은 지도교수 없이 학생 스스로 논문 작성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 분야에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항목 역시 설문에 응답한 자료만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원에 피아

노 교수학을 전공한 교수가 있어 교수학 전공 전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11> 참조

<표 10>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과제의 종류(a. 독주회, b. 논문, c. 렉처리사이틀, d. 기타)

학교명	독주회	논문	렉처리사이틀	기타
A대학원		O	O	렉처리사이틀을 하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가 강화됨 (예, 논문주제, 심화정도)
B대학원	O	O	O	
C대학원	O	O	O	a와c 중 선택, b는 필수
D대학원	O	O	O	d. 기타 Teaching Demonstration
E대학원		O	O	
F대학원	O	O		
G대학원	O	O	O	
H대학원	O	O		독주회, 논문, 추가학점 이수 중 학생이 선택 가능

<표 11> 우리나라 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학교명	지도교수	피아노교수학 전공 전임교수	피아노전공 전임교수	음대비피아노 전임교수	피아노교수학전공 초빙 혹은 겸임교수	피아노교수학 전공 시간강사
A대학원		O				
B대학원			O	O	O	O
C대학원						
D대학원		O			O	O
E대학원		O			O	O
F대학원					O	
G대학원		O				
H대학원		O	O			O

3. 피아노교수학 강좌내용

설문지의 세 번째 영역은 피아노교수학 전공과목에서 지도하는 구체적인

인 학습주제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열거되어 있는 학습주제가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도되는지 다섯 단계로 된 Likert Scale에 표기하였다(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조금 중요함, 3=보통, 4=중요함, 5=매우 중요함).

우선 이 부분의 첫 번째 문항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전공(과)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지도유형에 따른 교수전략(teaching strategies)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2개의 지도유형 및 학생수준을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수거된 8개 대학원의 설문지 중 총 6-7개 대학원이 부분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12>. 초·중·고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개인 및 그룹교습에는(N=7)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Likert Scale에서 평균 3.1 부터 4.6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데 반하여, 건반악기전공 혹은 음악전공이 아닌 대학생들을 위한 그룹피아노지도에는(N=6) Likert 평균 2.7-2.8의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습이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2> 우리나라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 전공(과)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지도유형에 따른 교수전략

교수전략	총 응답수	응답한 Likert 비율 (%)					Mean Likert
		1	2	3	4	5	
미취학생	7	0	0	14	29	57	3.7
초급학생: 개인교습	7	0	0	14	14	71	4.6
초급학생: 그룹교습	7	0	0	43	14	43	4.0
중급학생: 개인교습	7	0	0	14	29	57	4.4
중급학생: 그룹교습	7	0	0	43	29	29	3.9
고급학생: 개인교습	7	0	0	43	14	43	4.0
고급학생: 그룹교습	7	0	29	43	14	14	3.1
성인반/취미반: 개인교습	7	0	14	29	29	29	3.7
성인반/취미반: 그룹교습	6	14	14	29	14	14	3.0
건반악기 전공이 아닌 음악대학생을 위한 그룹피아노	6	14	29	14	14	14	2.8
음악전공이 아닌 대학생을 위한 그룹피아노	6	14	29	14	29	0	2.7
건반악기 전공 대학생을 위한 건반화성	6	29	14	0	14	29	3.0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들에서 다루는 지도 테크닉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7개 대학원에서 설문지에 제시된 22개의 피아노 테크닉 중 듣고 연주하기(Likert Mean=3.7/5.0)를 제외한 21개 지도테크닉에 Likert 평균 4.0/5.0이상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아노 연주 테크닉과 컴퓨터음악기술은 응답한 7개교에서 Likert 평균 4.6/5.0에 달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표 13>참조

<표 13> 우리나라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 전공(과)에서 다루는 피아노지도 테크닉의 종류

피아노지도테크닉	총 응답수	응답한 Likert의 비율 (%)					Mean Likert
		1	2	3	4	5	
독보 (Music reading)	7	0	0	14	43	43	4.3
리듬	7	0	0	14	43	43	4.3
테크닉	7	0	0	14	14	71	4.6
음색만들기 (Tone Production)	7	0	0	14	29	57	4.4
아티큘레이션	7	0	14	0	29	57	4.3
프레이징	7	0	14	0	29	57	4.3
손모양 (Hand position)	7	0	14	0	29	57	4.3
운지법	7	0	14	0	14	71	4.4
페달링	7	0	14	0	14	71	4.4
다이내믹	7	0	14	0	14	71	4.4
음악스타일	7	0	14	14	14	57	4.1
장식음	7	0	14	14	14	57	4.1
초견 (Sightreading)	7	0	14	0	29	57	4.3
화음넣기 (Harmonization)	7	0	0	14	29	57	4.4
전조 (Transposition)	7	0	0	29	14	57	4.3
즉흥연주 (Improvisation)	7	0	0	43	14	43	4.0
청음	7	0	0	43	14	43	4.0
듣고 연주하기	7	0	0	57	14	29	3.7
연습	7	0	14	0	29	57	4.3
암기	7	0	14	14	14	57	4.1
컴퓨터음악기술	7	0	0	14	14	71	4.6
디지털피아노	7	0	14	14	14	57	4.1

세 번째 문항은 피아노교수학 전공 강좌들에서 다루어지는 문헌의 종류를 조사한 것으로, 이는 피아노 학습자의 수준과 지도유형 등에 적합한 피아노

교재선택 및 분석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만큼 학교에서 강조하여 지도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조사연구 결과 응답에 임한 우리나라 대학원 6-7개의 피아노교수학전공(과)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급 수준의 피아노교재 문헌 학습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ean Likert=4.3-4.5/5.0). 반면에 성인그룹피아노를 위한 교재나(Mean Likert=2.7/5.0) 비음대생을 위한 클래스피아노교재를(Mean Likert=2.8/5.0) 위한 문헌 학습에 가장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참조

<표 14> 우리나라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 전공(과)에서 다루는 피아노 교수문헌

피아노 교수문헌	총 응답수	응답한 Likert의 비율 (%)					Mean Likert
		1	2	3	4	5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피아노교재	7	0	14	0	29	57	4.3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타 병행 교재	7	0	14	0	29	57	4.3
일반 초급용 피아노 교재	7	0	14	0	29	57	4.3
초급병행 독주곡집	7	0	14	0	29	57	4.3
초급병행 앙상블곡집	6	0	0	17	17	67	4.5
초급병행 이론교재	6	0	0	17	33	50	4.3
성인/취미 초/중급교재	6	17	17	17	17	33	3.3
비피아노전공음대생을 위한 클래스피아노교재	6	17	17	33	17	17	3.0
비음대생을 위한 클래스피아노교재	6	17	17	33	33	0	2.8
성인그룹피아노를 위한 교재	6	33	17	17	17	17	2.7
성인그룹피아노를 위한 병행독주곡집	6	17	17	17	33	17	3.2
성인그룹피아노를 위한 병행 앙상블곡집	6	17	17	17	17	33	3.3
중급학생을 위한 교수문헌	7	0	14	14	29	43	4.0
중급학생을 위한 독주곡집	7	0	14	0	43	43	4.1
중급학생을 위한 앙상블곡집	6	0	0	17	33	50	4.3
고급학생을 위한 독주곡집	7	0	14	29	29	29	3.7
고급학생을 위한 앙상블곡집	6	0	17	17	17	50	4.0

네 번째 문항은 피아노교수학 강좌들에서 다루는 학습주제들의 종류와 중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39개의 항목이 분류되어 제시되었고, 7개 대학원에서 다루는 각 항목의 중요성을 다섯 단계의 Likert Scale에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피아

노교수학의 최근 동향 및 추세와 개인교습·그룹교습의 장단점에 관한 주제로 나타났다(Mean Likert=4.4/5.0). 그 다음으로는 피아노 교수내용의 개발, 피아노 교수문헌의 선택, 교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 학생연주 및 콩쿠르 준비, 건반테크닉의 역사에 관한 학습주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ean Likert=4.3/5.0). 반면에 다양한 대학생 클래스피아노 교재의 포괄적인 학습(Mean Likert=2.7/5.0)과 소수의 대학생 클래스피아노 교재의 심도분석(Mean Likert=2.9/5.0)에는 가장 적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른 특징으로는 연령이나 수준별 교재 분석에 있어서 소수 교재의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다양한 교재의 포괄적인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5> 피아노교수학 강좌들에서 다루는 학습주제들의 종류와 중요성

학습주제	총 응답수	응답한 Likert의 비율					Mean Likert
		1	2	3	4	5	
피아노 교수내용의 개발	7	0	14	0	29	57	4.3
교수 계획	7	0	14	14	14	57	4.1
피아노 교수 문헌의 선택	7	0	14	0	29	57	4.3
교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	7	0	14	0	29	57	4.3
그룹 티칭	7	0	14	29	14	43	3.9
학습이론과 스타일	7	0	14	14	43	29	3.3
피아노 교수 철학	7	0	14	14	14	57	4.1
교사의 인성	7	14	0	14	14	57	4.0
학생의 인터뷰	7	14	0	14	29	43	3.9
피아노 학생의 동기 유발	7	14	0	14	29	57	4.1
피아노 학생 평가를 위한 분석 기법	7	0	0	43	29	29	3.9
다양한 유아 음악 교재의 포괄적인 학습	7	0	14	29	29	29	3.7
소수의 유아음악 교재의 심도 분석	7	0	14	43	29	14	3.4
다양한 초급 과정 교재의 포괄적인 학습	7	0	14	0	43	43	4.1
소수의 초급 과정 교재의 심도 분석	7	14	0	29	43	14	3.4
다양한 대학생 클래스피아노 교재의 포괄적인 학습	7	29	14	29	14	14	2.7
소수의 대학생 클래스피아노 교재의 심도 분석	7	14	14	43	29	0	2.9
중급과정 작품의 선호되는 출판사	7	0	14	14	43	29	3.9
고급과정 작품의 선호되는 출판사	7	0	14	43	29	14	3.4

학습주제	총 응답수	응답한 Likert의 비율					Mean Likert
		1	2	3	4	5	
초급과정 피아노 작품 작곡하기	7	14	0	29	14	43	3.7
개인 피아노 교습소를 위한 정책과 절차	7	14	0	14	29	43	3.9
개인교습의 장단점	7	14	0	14	29	43	3.9
그룹교습의 장단점	7	0	14	0	43	43	4.1
개인교습과 함께하는 그룹교습의 장단점	7	0	0	14	29	57	4.4
피아니스트로서의 진로	7	29	0	0	29	43	3.6
피아니스트의 신체적인 질병(직업병)	7	14	14	29	14	29	3.3
저작권에 관한 법률	7	14	0	57	14	14	3.1
무대에서의 공포	7	14	0	14	29	43	3.1
학생연주 준비	7	14	0	0	14	57	4.3
학생콩쿠르 준비	7	14	0	0	14	57	4.3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 준비	7	14	0	43	29	14	3.3
피아노교수법에 관련된 참고도서	7	0	14	14	14	57	4.1
피아노교수법의 역사	7	0	14	14	14	57	4.1
전문적인 음악기관들과 음악관련 논문 및 잡지들의 개괄	7	0	14	29	43	14	3.3
건반 악기들의 구입, 보호, 관리	7	14	0	29	29	29	3.6
건반 테크닉의 역사	7	0	0	29	14	43	4.3
연주 준비 (rehearsal)	7	0	14	14	14	57	3.4
음악첨단 장비 및 기자재	7	14	0	29	43	14	3.4
피아노 교수법의 최근 동향 및 추세	7	0	0	14	29	43	4.4

다섯 번째 문항은 피아노교수학 강좌에서 사용하는 학습보조물들의 종류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 전공 각 대학별 시설 및 장비 구비 현황을 조사해보았다(N=7). 총 20개의 학습보조물 중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Metronome(Mean Likert=4.4/5.0)이고 그 뒤로 Games, Visual aids, Television, Video tape recorder, Audio tape recorder가 빈번히 사용된다고 조사되었다(Mean Likert=4.3/5.0). 반면에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은 Multi-track tape recorder와 class web(Mean Likert=3.0/5.0)이었다.

<표 16> 피아노교수법 강좌에서 사용하는 학습보조물의 종류와 사용빈도

학습보조물	총 응답수	응답한 Likert의 비율 (%)					Mean Likert
		1	2	3	4	5	
Games	7	0	14	0	29	57	4.3
Visual aids	7	0	14	0	29	57	4.3
Metronome	7	0	14	0	14	71	4.4
Television	7	0	0	14	43	43	4.3
Video Tape Recorders	7	0	14	0	29	57	4.3
Audio Tape Recorders	7	0	14	0	29	57	4.3
Overhead project	7	14	14	14	0	57	3.7
Visualizer (시각교재)	7	14	0	29	14	43	3.7
Computers	7	0	14	29	14	43	3.9
Computer software for music instruction	7	14	0	14	14	57	4.0
Class web	7	29	0	43	0	29	3.0
Electronic Keyboards	7	0	14	14	29	43	4.0
Synthesizer	7	0	0	43	29	29	3.9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MIDI)	7	14	0	29	29	29	3.6
Sequencer	7	14	0	29	29	29	3.6
Digital Piano	7	0	0	43	29	14	3.7
Drum Machine	7	14	0	43	29	14	3.3
Multi-track tape recorder	7	29	0	29	29	14	3.0
Electronic keyboard laboratories	7	14	0	29	29	29	3.6

여섯 번째 문항은 우리나라 피아노교수법 강좌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응답한 8개교 중 6개교에서 “피아노교수법 최고의 길잡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75%), 그 다음으로는 Bastien의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가 많이 사용되었다(63%). 특히 Bastien의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는 Milliman (1992, p. 70-72)의 연구조사에서도 미국의 음악대학 피아노교수법 전공 필수 교과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표 17>의 조사결과에서 국내 연구자가 출판한 교과서가 사용되는 것은 주목할 만 한 사실이다.

<표 17>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 사용하는 교재

교과서명	응답수(N=8)	백분율(%)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Uszler, Gordon 외)	6	75%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J. Bastien)	5	63%
On Playing Piano (G. Sandor)	5	63%
피아노 연주법 (막스 켈프)	4	50%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송정이)	4	50%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안미자)	3	38%
통합 피아노 교수법 (김영숙)	1	13%
해설이 있는 피아노(범영숙)	1	13%
영피아니스트 피아노교육 (Joan Last)	1	13%
피아노연주법 (Boris Berman)	1	13%

일곱 번 째 문항은 전공교과와 관련하여 교과서 이외에 학교에서 참고 문헌으로 어떤 종류의 정기간행물, 학술지, 저널 등을 구독하는지 조사하였다<표 18>. 이 전 문항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별로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8개 대학원 중 1개 대학원은 정기 구독하는 간행물, 학술지, 저널이 전혀 없다고 하여 총 7개 대학원만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출판된 정기간행물의 구독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외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구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여기서 분석한 문제점으로는 국내·외 학술지 및 저널의 구독률이 특히 저조하였으며, 이는 각 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피아노교수학 관련 연구를 위한 문헌 확보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우리나라 음악대학 피아노교수학과에서 구독하는 정기간행물, 학술지, 저널의 종류

정기간행물 종류	응답수 (N=7)	백분율 (%)
피아노 음악 (국내)	7	100%
음악교육신문	7	100%
인터내셔널 피아노 (국내)	5	71%
Clavier	5	71%
The American Music Teachers	3	43%

정기간행물 종류	응답수 (N=7)	백분율 (%)
Keyboard Companion	2	29%
The Key & Keyboard (MENC)	2	29%
Teaching Music (MENC)	2	29%
Music Educators Journal (MENC)	2	29%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	29%

여덟 번째 문항은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를 이수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과제나 프로젝트의 종류를 조사하였다<표 19>. 설문에 응답한 8개 대학원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과 읽기 과제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N=8, 100%), 다음으로는 7개 대학원에서(88%) 수업노트작성, 워크숍 참여 및 발표, 논문연구를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피아노교재 사용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6, 75%). Milliman(1992)의 조사연구에서도 Reading Assignment(N=47, 95.7%), Survey of Teaching Literature(N=38, 82.6%)가 미국대학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 요구하는 과제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9> 피아노 교수법 전공강좌를 이수하기 위한 과제와 프로젝트의 종류

전공강좌 과제 및 프로젝트의 종류	응답수 (N=8)	백분율 (%)
참고문헌 파일 (Card File of Reference Books)	1	13
교수문헌 파일 (Card File of Teaching Literature)	0	0
읽기 과제 (Reading Assignment)	8	100
수업 노트 (Notebook of Class Notes and Materials)	8	100
워크숍 참여 및 발표 (Presentation of a Workshop on Teaching)	7	88
논문 연구 (Research Paper)	7	88
피아노교재 사용에 대한 조사 (Survey of Teaching Literature)	7	88
피아노교재와 관련된 활동 (Correlating Activities with a Piano Method)	6	75
기타	5	63

마지막 문항에서는 피아노 교수학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또는 학교에서 권하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전체 8개 대학원 중 전문 음악교사 모임에 참가하여 활동하길 권유하는 학교가 7개 대학원으로(88%)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지역이나 전국적인 음악/피아노 교사 단체에 참여하기를 권유하는 학교가 5-6개 대학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를 필수로 요구하기 보다는 권유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무관하다고 응답한 대학원도 있었다.

<표 20>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또는 학교에서 권하는 활동

피아노교수학 전문성 개발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필수 (N=응답수, %)	권유 (N=응답수, %)	무관 (N=응답수, %)
지역 음악/피아노 교사 단체	3 (38%)	5 (63%)	0 (0%)
전국 음악/피아노 교사 단체	2 (25%)	6 (75%)	0 (0%)
국제 음악/피아노 교사 단체	1 (13%)	5 (63%)	2 (25%)
피아노 교수학 워크샵 참가	2 (25%)	6 (75%)	0 (0%)
전문 음악 교사 모임의 참가	1 (13%)	7 (88%)	0 (0%)
피아노나 음악교육의 전문잡지 정기구독	2 (25%)	5 (63%)	1 (13%)

4. 피아노 교수학 전공 강좌에서의 수업 참관과 교습 경험

설문지의 네 번째 영역에서는 대학원에서 피아노 수업의 참관(Observation of piano teaching)이 피아노교수학 전공 강좌를 이수하기 위한 과제나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결과 응답한 8개 대학원 중 3개 대학원에서는 ‘참관한다’고 응답하였고 (38%) 나머지 5개 대학원은(63%) 수업참관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78%(N=39)의 대학원에서 피아노수업참관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Milliman, 1992, p. 93),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수업 참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1> 피아노 수업참관 유무

피아노수업참관 유무	응답수 (N=8)	백분율 (%)
참관한다	3	38
참관하지 않는다	5	63

피아노 수업 참관을 요구하는 3개 대학원의 경우 2개 대학원은 개인교습과 그룹교습 모두 참관한다고 하였으며 1개 대학원은 개인교습만을 참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개 대학원 모두 각 대학교의 교수학 및 연주전공 전임교수 혹은 강사의 지도나 교습을 관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개 대학원에서는 연주전공 강사나 동료 교수학 전공 학생의 교습을 관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1개 대학원에서는 교외 지역의 개인 피아노 교사의 교습을 관찰한다고 응답하였다.

피아노교수학 전공 학생들이 학위나 강좌의 이수 조건으로 특정한 지도실습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8개 대학원 중 2개 대학원(25%)만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79.6%(N= 39)의 대학교에서 지도실습을 전공 필수로 요구한다고 응답한 미국대학원의 실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Milliman, 1992, p.96). 위에서 지도실습을 학위이수를 위한 전공필수로 요구한다고 응답한 우리나라의 2개 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지도실습 시험을 치러 학생들의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때 개별적인 상담, 그룹상담, 그리고 레슨일지나 보고서와 같은 기록된 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도실습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한 대학원에서는 제한적으로 해당 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지도관찰 및 실습을 하도록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때, 총 40시간 이상의 지도실습을 별도로 요구하며, 학생들의 지도실습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 관찰이나 비디오테이프 녹화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또 다른 대학원에서는 학교에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여 교수학 전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지도 학생을 구하여 실습을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5. 조언

설문지의 다섯 번째 영역은 설문에 응답한 각 대학 담당 교수들이 제시하는 피아노교수학 전공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두 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각 대학 담당 교수들은 수업참관 및 지도실습의 부재, 기자재 및 공간 부족, 그리고 이론과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피아노 교수학의 방향 제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교과목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강좌 간에 지도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겹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아노교수학 전공의 입학 정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 또한 매 학기 유동적이어서 교과목의 개설과 담당교수의 수급의 문제 등 학과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설문에 응답한 각 대학의 담당자들의 응답을 직접 인용한 후 공통된 주제어로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A: “이론과 실체사이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음악적으로도 integrity가 지켜질 수 있는 개개인의 각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론과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법의 방향 제시)

응답자 B: “수업참관이나 교습 및 실습이 전공이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룹레슨 실습을 위한 기자재 및 공간 부족하다.” (수업참관 및 지도실습의 부재, 기자재 및 공간 부족)

응답자 C: “이론에 기초를 둔 실질적이고 한국음악교육(피아노 개인 교습이나 학원 운영) 현실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론과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법의 방향 제시)

응답자 D: “때로 교수진의 개인적인 문제로 교과목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점이 힘들다. 그리고 좀 더 실습과 초급/중급의 학생 지도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강의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과목간의 연결, 이론과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법의 방향 제시)

응답자 E: “실습을 위한 강좌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시설부족으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교외에서 지도실습 활동을 하는 점이 아쉽다.” (지도실습의 부재, 기자재 및 시설부족)

응답자 F: 무응답

응답자 G: “입학정원이 매우 제한되고 유동적이어서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이 큰 문제점이다. (학생정원의 제한, 교과목간의 연결)

그리고 Lab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여 특정 분야의 경우 지도실습과 수업참관을 실시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강좌수의 제한, 시설부족, 지도실습 및 수업 참관의 부재)

응답자 H: “과목의 취지를 강사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중복되는 내용이 다른 제 목의 강좌에서 다루어질 때가 있어서 강좌운영이 어렵다.” (교과목간의 연결)

다음은 본 설문지에 응답한 총 8개 대학원의 담당 교수들이 제시하는 피아노 교수학 전공 운영을 위한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피아노 교수학 전공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첫째, 커리큘럼의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N=5$).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동시에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을 통해 각 학교별 전공의 특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N=3$). 특히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수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지도하는 교사나 학습하는 학생 양측에도 피아노 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생들을 지도·인솔할 수 있는 전임교원 및 책임강사의 확충이 필요하다($N=2$). 피아노교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원이 확보가 되어야 학생들의 지속적인 양성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관에서 피아노교수학이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디지털 피아노 랩과 같은 시설과 장비의 보강, 참관수업 및 지도실습을 위한 연계 교육기관의 확보 그리고 학생의 외국어 능력(영어)을 강화시켜 연구의 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강화 노력 이전에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수학 능력을 고려해 학위과정 수학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학생

의 선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설문에 응답한 각 대학의 담당자들의 응답을 직접 인용한 내용이다.

- 응답자 A: “개개인의 학습과정과 실제 적용과정에서 의미를 가지고 추진해 갈 수 있는 피아노 교육 (소비자)전반에 걸친 선진화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피아노교수학의 새로운 방향제시)
- 응답자 B: “지도실습을 실행 할 수 있는 하부기관(부속기관) 및 연계기관 확보되어야 한다. 교수학 전반에 관한 방향설정 및 비전 제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인솔할 수 있는 책임 강사 및 전임 교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실습 개선을 위한 연계기관 확보, 피아노교수학의 새로운 방향 제시, 커리큘럼 재정비, 전임교원 확보)
- 응답자 C: “이론에 기초를 둔 실질적이고 한국음악교육(피아노 개인 교습이나 학원 운영) 현실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피아노교수학의 새로운 방향 제시)
- 응답자 D: “기존의 피아노 교수학과 차별된 우리대학만의 특성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종합외국어 능력 향상시켜 영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커리큘럼개발, 특성화,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
- 응답자 E: “좀 더 다양한 강좌개설이 필요하다.” (커리큘럼의 다양화)
- 응답자 F: “피아노교수학 석사학위과정 커리큘럼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의 추구가 필요하다” (커리큘럼과 전공 운영의 효율성)
- 응답자 H: “개학 전 커리큘럼 회의를 통해 참고문헌이나 교과목 내용의 조율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듣도록 하려고 한다.” (커리큘럼의 다양화)

IV. 토 론

우리나라에 개설된 피아노교수학과는 설문에 응답한 7개교 8개 대학원 모두 사립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피아노교수

학전공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 대학교에서만 밀집되어 설립된 이유는 아직 조사된바 없으나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통학문과 분야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사립 대학교에 설립된 피아노교수학과 전공의 소속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3%(N=5)가 특수대학원에 속하여 개설되어 있었다.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운영상의 차이점을 찾아본 결과, 특수대학원에서 운영된다고 하여 수업이 반드시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피아노교수학과 개설을 위한 대학원의 소속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대학원이 아닌 특수 대학원을 선호하는 원인을 추측해보면, 학부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특성상 일반 대학원에서의 새로운 전공의 운영,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의 확보, 교과목 개설과 운영, 각종 규정과 이의 실행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는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학과목 개설이나 학생 정원 수 등과 같은 학과 운영과 관리가 일반대학원체제보다는 특수대학원체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본부의 제약이 덜하고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남용되고 영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학문적인 질을 떨어뜨리고 학위과정이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음을 학교 담당자들은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의 기존 연주전공 피아노 교수들의 학과 또는 전공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피아노 교수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영향을 받아 일반대학원에 피아노교수학 전공 도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 전공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실기전형에 있어 레퍼토리의 범위와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63%의 대학원에서(N=5) 10분 내외의 자유곡이나 소나타 한 악장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나, 반면 한 곡 이상 연주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다. 석사과정 실기입학전형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얼마나 다양한 곡을 연주 할 수 있는지의 양적인 면과 그것을 과연 어떻게 연주하는지 질적인 면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려하여야 할 점은 피아노 교수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학생의 자질 및 능력 중 피아노 연주전공 석사과정과 동등한 연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미국의 National Conference on Keyboard Pedagogy(1989)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안에 연주능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석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주능력을 요구하는데 예외는 없어야 한다.

지난 2007학년도에 우리나라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학과)에 등록된 재학생 수의 평균은 학교 당 약 27.5명($N=6$)에 이른다. 반면에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 수의 평균은 3개 대학원 전체를 합하여 58명($N=3$)에 불과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학교($N=5$) 중, 2개 대학원은 신설학교라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여 제외되었고 실제 3개 대학원의 졸업생 수만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학교별 평균 재학생의 숫자에 비해 전체 총 졸업생의 숫자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학위과정 중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종합시험 혹은 졸업과제 이수를 마치지 못하여 입학한 학생 수에 비해 졸업하는 학생의 수가 훨씬 적은 것이라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입학전형 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수준미달의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 스스로 학업에 부담을 느껴 중단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대학원에서의 피아노교수학 전공을 지도하는 교수진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Milliman(1992, p.48)은 그의 연구에서 설문지에 응답한 총 84개 대학원에서 재직 중인 피아노교수학 전공 전임의 수는 학교당 크게 0-4명에 이르며, 이는 학교별 평균 1.1명($N=84$)의 전임교수가 재직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학교별 평균 0.5명($N=8$)의 전임교수가 재직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강사의 비율에 있어서 단지 14.5%($N=12$)의 대학원에서 1명의 시간강사를 채용한다고 응답했으며, 83%($N=69$)의 대학원에서는 시간강사를 전혀 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83개 대학원에서 재직 중인 피아노교수학 전공 시간강사의 평균은 한 명이 채 안 되는 0.2명으로 나왔다. 이

와 같은 수치는 한 학교당 평균 6명(75%)의 시간강사를 고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였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피아노교수학(과) 전공에서는 시간강사에 의존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아노교수학전공 석사학위 명칭을 피아노연주전공과 분리하여 음악(학)석사(Master of Music), 피아노교수학석사(Master of Piano Pedagogy), 예술학석사(Master of Arts) 등을 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피아노교수학 전공 뿐 만 아니라 피아노 교수학을 강조하는 연주전공 혹은 피아노 연주를 강조한 피아노 교수학 전공 등이 공존하는 체제하에 음악(학)석사(Master of Music)와 음악교육학석사(Master of Music Education) 등으로 학위명이 분류되는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학위명이 공통적으로 Master of Music이라 하더라도 남캐롤라이나 대학은 피아노교수학 석사과정 안에 졸업과제에 따라 리사이틀 트랙과 논문 트랙으로 개설되어 학생의 특성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http://www.music.sc.edu/ea/Keyboard/PED.html>). 오클라호마 대학에서는 위의 남캐롤라이나 대학처럼 두 종류의 석사과정이 있지만 졸업 시 학생이 선택한 트랙에 따라 피아노교수학에 비중을 둔 피아노연주전공의 경우에는 Master of Music이라는 학위가 그리고 피아노교수학에 비중을 둔 음악교육 전공의 경우 Master of Music Education으로 학위명이 나가게 된다(<http://music.ou.edu/inline/Students/grad-pdf>). 그 외에 텍사스 주립대는 “피아노 문헌과 교수법 전공” 명으로, 남감리교 대학에서는 “피아노연주와 교수법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공누이, 2007).

NASM(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1989)에서 제공하는 음악교수학(페даго지) 전공 석사과정 교과구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전공필기를 포함한 페даго지 전공필수과목, 음악이론과 음악사 등을 포함한 선택(공통)과목, 그리고 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및 논문, 연주회 등이 각 각 1/3 비중으로 구성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미국의 84개 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61%(N=52)의 대학원에서 필수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조사되

었다. 8개 대학원 중 2개 대학원(25%)에서만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의 구분을 지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원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피아노교수학전공 대학원 교과과정 구성에 있어 필수교과와 선택교과의 분류는 의무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심화학습과 더불어 일종의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과목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24-33학점이다. 이는 미국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과 중에서 한국처럼 학기제로 운영되는 몇 개의 대학원 과정을 선택하여 비교하였을 때, 요구하는 이수학점의 수인 30-36학점과 비슷한 편이다(공누이, 2007). 하지만 한국의 대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졸업이수과제인 연주회, 논문, 프로젝트 등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합격/불합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총 이수학점의 수가 결코 미국의 대학원에서의 것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석사과정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젝트발표나 논문 그리고 연주회 등이 학점인정 없이 합격/불합격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이며, 학점이 없는 관계로 부실한 운영과 학문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석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실기시험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학교별로 2학기에서 4학기동안 2-4회에 걸쳐 실기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실기시험 횟수와 유사하다. 대신 전공트랙에 따라 요구되는 실기시험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의 피아노교수학 전공이라 하여도 리사이틀 트랙의 경우는 총 6학점을, 논문트랙의 경우는 4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http://www.music.sc.edu/ea/Keyboard/PED.html>).

이처럼 같은 피아노교수학전공이라 하여도 학생의 특성에 따라 피아노 연주, 문헌, 음악교육 등에 두는 비중을 달리 하여 이수하는 학점 수나 졸업 과제 등에 차이를 두게 하는 유연한 관리는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수학

전공에서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는 미국 대학원들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과목에서 지도하는 구체적인 학습주제들의 종류 및 중요도를 비교·조사해본 결과, 우선 학생들의 수준과 지도유형에 따른 교수전략에 관한 학습 주제의 경우, 초·중급 수준의 학생 지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양측 모두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Milliman, 1992, p. 76-77), 건반악기 전공이 아닌 음악대학생을 위한 그룹피아노의 학습전략지도에 초·중급 수준의 개인 교습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N=51$, Likert Mean=3.15/4.0),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는 영역 중의 하나로 조사되었다($N=6$, Likert Mean=2.8/5.0).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 유형에 있어서도 그룹 지도에 관한 관심이 개인지도 유형보다 절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것도 미국 대학원에서의 교수전략과 큰 차이점이었다.

그 외의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 다루는 학습주제들을 비교해 본 결과, 피아노교수내용의 개발 및 교수 계획, 피아노 교수 문헌 선택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원의 경우 학습이론과 스타일에 관한 학습주제에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반해(Mean Likert=3.3/5.0)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위의 학습주제들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Mean Likert=4.0/4.0).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우리나라 피아노교육은 다양한 학습이론을 다루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을 내릴 수 있겠다. 또 미국의 대학원에서 가장 덜 강조하는 학습주제로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준비로 나타나(Mean Likert=1.0/4.0) 학생의 콩쿨·입시준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Mean Likert=3.3/5.0)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하는 교수문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을 위한 개인·그룹 피아노 교재 및 비피아노 전공 음대생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 교재에 관한 관심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면, 미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음악대학생을

위한 그룹 피아노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 그룹지도자 양성을 위해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탄력을 받고 확장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개설된 배경을 살펴보면, 미래의 음악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피아노 연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방법, 지도문헌, 그리고 지도실습 등의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학과목을 통해 지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배경이 주된 원인이었고, 대학 내에서 음대생들을 위한 그룹피아노지도를 위한 전문 지도자 양성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문헌연구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분석이 가능하겠다.

피아노교수학 전공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학 피아노교수학 전공강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보조물은 전자피아노실을 제외하면 메트로놈(Metronome), 시각보조교재(Visual aids), 비디오 테입 녹음기(Video tape recorder)와 오디오 테입 녹음기(Audio tape recorder)등이 공통적으로 빈번히 사용된다고 조사되었다.

미래의 피아노교사가 될 피아노 연주 전공생들에게 지도실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피아노교수학과(전공)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피아노수업참관을 요구하는 학교가 8개 대학원 중 단지 3개 대학원(38%)에 불과하였다. 이는 78%(N=39)의 대학에서 피아노 수업참관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Milliman, 1992, p. 93), 수업 참관 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동시에 지도실습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대상 8개 대학원 중 2개 대학원(25%)만이 학생들에게 지도실습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응답한 49개교 중 39개교(79.6%)에서 지도실습을 전공 필수로 수행하고 있어(Milliman, 1992, p. 96) 이 부분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피아노교수학 전공을 운영함에 있어 특히 수업참관과 지도실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학교 내 교수들과 기관 내 담당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직 지도실습을 위

한 기관 내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레슨일지, 개별적인 관찰이나 상담, 비디오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지도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적인 측면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피아노교수학이 도입되지 10년여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8개 대학교의 9개 대학원에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피아노교수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대학으로 피아노교수학이 확산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피아노교수학의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혹시 양적인 증가에 맞춰 질적인 면에 부실함이 없는지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각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 전공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피아노교수학의 전공 도입에 있어 일반대학원 보다는 특수대학원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문적 특성 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 즉 정원의 확보, 운영의 자율성 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었다. 둘째, 수업연한, 대학원 지원 자격, 전형절차, 수여학위명 등의 운영에 있어 각 대학원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특히 지원자격의 차이가 많았으며 나아가 그 수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선 대학의 현실과 사정에 의해 지원자격의 수준이 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원의 수준이 원생의 지원 자격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학원의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원의 피아노교수학전공 교과과정, 졸업이수 학점, 그리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운영, 특히 전공실기시험

실태, 논문 지도, 그리고 종합시험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넷째, 피아노교수학 강좌의 내용을 보면 초급지도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룹지도, 성인지도, 그리고 음대 비피아노 전공생 지도에 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째, 지도참관 및 지도실습의 활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째, 피아노교수학 전공을 운영하면서도 피아노교수학 전공의 전임교원이 없이 시간강사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대학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피아노교수학 전공은 미국의 대학원에서 볼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와 운영 방식 없이 학교마다 그 성격과 운영의 모습이 다른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대학원마다 입학자격에서부터 전형방법, 그리고 졸업 자격과 요건에 이르기까지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공 전임교원도 없이 대학원이 운영되는 현실은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피아노교수학의 올바른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이 분야 대학원 협의체와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을 공동 모색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면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와 같은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국제적 기준에 벗어나 자기 방식대로 대학원을 운영하는 모습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 간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피아노교수학 전공이 우리나라에 건전하게 뿌리내리고 발전하는데 본 논문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Bastien, J.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3rd ed. San Diego, CA: Neil A. Kjos Company, 1988.
- Chronister R. & McBeth T. Eds. (1991) "Directory of piano pedagogy offering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Proceedings and reference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Princeton, NJ: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 Lancaster, E. L.(1979). "Training the group piano instructor." *American Music Teacher* 28 (April-May 1979): 16.
- Milliman, A. L. (1992). "A survey of graduate piano pedagogy core course offerings". Ph.D. diss., University of Oklahoma, Norman, OK.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Music 1989-1990 Handbook*.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1989), 63.
- Uszler, M. & Larimer F. (1984a). *The piano pedagogy majors in the colleges curriculum: A Handbook of information and guidelines*. Part I: The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majors. Princeton, NJ: The National Conference of Piano Pedagogy, 9.
- _____. (1984b). *The piano pedagogy majors in the colleges curriculum: A Handbook of information and guidelines*. Part II: The graduate piano pedagogy majors. Princeton, NJ: The National Conference of Piano Pedagogy, 9.
- Won, K. (1999).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course offerings in selec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DMA. diss., University of Oklahoma, Norman, OK.
- 공누이 (2007). "피아노교수법전공 대학원 교과과정 연구,"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논문집, 제3집: 1-20. 서울: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 권수미 (2008, 8).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의 학문적인 정착의 필요성.”
International Piano Vol. 65, 62-65.
- 장혜원 (1997). “21세기의 대학음악교육의 전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 정완규 (2005). “피아노 교수법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논문집, 제1집, 서울: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 (2008, 7). “피아노 페다고지의 중요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International Piano. Vol. 65, 62-64.
- 조선우 (1996).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회: 부산의 음악대학교육의 현재와 21세기의 전망. 부산: 동아대학교.
- 한국교육명부 (2005).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http://www.music.ou.edu/inline/Students/grad-pdf>
- <http://www.music.sc.edu/ea/Keyboard/PED.html>

ABSTRACT

**Comparison of the Curriculum and
Operation of the Piano Pedagogy
between the Graduated Courses in the
U.S. and those in Korea**

Chung, Wan Kyu · Kwon, Sumi

Since 1998 when the piano pedagogy was first introduced as a master degree program in Korea, ten graduate schools have established piano pedagogy program with the purpose of nurturing well-educated piano tea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existing curricula in nine graduate schools in Korea and the graduate piano pedagogy core course offerings in the U.S. to lay the foundation of setting standardized curriculum that could be used throughout any other institutions.

For this research a survey was made based on Milliman(1992)'s investigating tool.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there have been gathered several information and suggestions from the eight graduate schools among nine responded to this survey(89%). In operating the piano pedagogy majors in graduate schools, many gaps and disagreements are found in the following areas: the institution information, the admission procedure, the curriculum, the contents of the course works, the teaching observation and the internship experiences in the piano pedagogy major in their graduate schools.

Furthermore the following results were gathered.

First, the piano pedagogy graduate programs in Korea prefer to be established in the special graduate schools. Second, the operation of the piano pedagogy major programs varied in the following areas: the course work period, the qualification for the applicants, the admission procedure, and the name of degree, etc. Third, the curriculum as well as the content of the course works varied among nine graduate schools in Korea. Especially, most piano pedagogy major programs in Korea are much interested in teaching the beginner instruction. On the contrary they are less interested in teaching the group piano instruction, the adult instruction, and the non-piano major college music students. Especially, the teaching observation and the internship experience was revealed as the weakest part in the curriculum comparing to the universities in the U.S. Fourth, most of piano pedagogy graduate programs in Korea were operated by the part-time professors rather than the full-time professors.

Key Words :

심사 날짜: 11월 7일
수정 날짜: 11월 30일